

사회복지 현장 인력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머리 맞대다

- 관계 부처(기획처·복지부·성평등부), 전문가가 함께 복지 현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 연구용역 추진 후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27년 예산안 등에 반영 계획

기획예산처는 '26.2.3(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복지 현장 서비스 제고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2.3일(화) 14:00, 정부세종청사
- 참석자 : (관계부처)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성평등부 정책기획관
(전문가) 보건사회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이번 간담회는 기획처,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업무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요양·돌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복지 인력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복지부, 성평등부는 약 100여 종의 복지서비스를 현장 인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관계 기관에서는 사회복지 인력들이 보람을 느끼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이면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또한,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인력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 등을 '27년 예산안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4-2910)
		담당자	사무관	김도희 (kimdohee@korea.kr)